



고연령 사고사망자 감소추이와 의미

김세중 연구위원

2016년 사망원인 통계를 60세 이상 고연령군과 60세 미만 저연령군으로 구분해 볼 때 고연령군의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질병과 질병 이외 원인 모두에서 저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. 그러나 질병 이외 원인을 사고, 고의적 자해(자살), 타살 및 기타로 구분할 경우, 사고사망은 고연령군의 사망자 수 감소가 저연령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 사고사망의 경우 안전인식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고연령군의 사망자 수 감소가 저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고령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

- 2016년 사망원인 통계¹⁾를 60세 이상 고연령군과 60세 미만 저연령군으로 구분해 볼 때 고연령군의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질병과 질병 이외 원인 모두에서 저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
 -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,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질병 사망률(사망원인의 약 95%를 차지) 개선과 함께 질병 이외의 사망률도 개선되고 있음
 - 질병의 경우 고연령군에서는 10만 명 당 사망자 수(이하 사망자 수)가 2010년 이후 연평균 1.6% 감소한 반면 저연령군에서는 1.2% 감소하였고, 질병 이외(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)의 경우에도 고연령군에서 4.3% 감소한 반면 저연령군에서는 4.1% 감소에 그침
- 그러나 질병 이외 원인을 사고, 고의적 자해(자살), 타살 및 기타로 구분할 경우, 사고사망은 고연령군의 사망자 수 감소가 저연령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질병 이외 사망은 크게 사고, 고의적 자해(자살), 타살 및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, 사고사망에는 운수사고, 추락사고, 익사사고, 화재사고, 중독사고 등이 포함됨
 - 고연령군의 고의적 자해(자살) 사망자 수는 연평균 6.8% 감소하여 저연령군의 2.6%에 비해 크게

1) 통계청(2017), 『2016년 사망원인 통계』

감소하고 있으나, 사고사망의 경우에는 고연령군 사망자 수 감소 폭이 3.0%로 저연령군의 4.7%에 미치지 못함

- 한편 타살 및 기타 사망의 경우에도 저연령군의 연평균 사망자 수가 9.4% 감소하여 고연령군의 2.9%에 비해 크게 감소함
 - 타살 및 기타 사망의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

〈표 1〉 연령군별 10만 명 당 사망자 수 증감 (2010년~2016년)

구분	고연령(60세 이상)			저연령(60세 미만)		
	2010년	2016년	연평균 증감률	2010년	2016년	연평균 증감률
가. 질병	2,412.0	2,190.2	-1.6%	97.4	90.7	-1.2%
나. 질병 이외	187.6	144.2	-4.3%	44.2	34.5	-4.1%
① 사고사망	59.7	49.8	-3.0%	13.4	10.0	-4.7%
1) 운수사고	38.9	27.3	-5.7%	9.3	6.1	-7.0%
2) 추락사고	14.9	16.8	2.0%	2.4	2.4	-0.4%
3) 익사사고	3.0	3.1	0.5%	1.0	0.8	-2.3%
4) 화재사고	1.6	1.5	-1.3%	0.4	0.3	-1.6%
5) 중독사고	1.4	1.1	-3.5%	0.3	0.4	7.2%
② 고의적 자해(자살)	71.7	47.2	-6.8%	24.4	20.8	-2.6%
③ 타살 및 기타	56.1	47.2	-2.9%	6.5	3.6	-9.4%

주: 1) 10세 연령군별 사망률(10만 명 당 사망자 수)와 2010년 및 2016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군별 사망률을 재계산함
 2) 저연령 사망률 계산 시 신생아는 제외함

자료: 통계청(2017), 『2016년 사망원인 통계』 및 통계청 추계인구

■ 또한 사고사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독사고를 제외하고 운수사고, 추락사고, 익사사고, 화재사고 모두에서 고연령군의 사망자 수 감소 폭이 저연령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

- 운수사고의 경우 저연령군 사망자 수는 연평균 7.0% 감소하였는데 반해 고연령군 사망자 수는 연평균 5.7%의 감소에 그치고 있음
- 추락사고의 경우 저연령군 사망자 수가 연평균 0.4% 감소한 반면 고연령군 사망자 수는 오히려 2.0% 증가하였으며, 익사사고 역시 저연령군 사망자 수가 연평균 2.3% 감소한 반면 고연령군 사망자 수는 0.5% 증가함
- 화재의 경우에도 저연령군 사망자 수가 연평균 1.6% 감소한 반면 고연령군에서는 이보다 낮은 1.3%의 감소를 보임

■ 사고사망의 경우 안전인식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고연령군의 사망자 수 감소가 저

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고령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

- 사고사망의 경우 질병사망과 달리 사회발전과 더불어 안전의식이 진전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갖추어짐으로써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한 특징을 보임
-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장수선진국인 일본과 같이 고령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, 고령자의 사고사망자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고령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하다고 해석될 수 있음
- 고령자의 운수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안전지역 확대 및 고령자 교통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,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자가 추락, 익사, 화재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난간, 소방시설 등의 확충이 요구됨 **kiri**